

석화업계, 업황개선 기대감... 중동發 공급경쟁 막판 변수

석화기업 2분기 실적 개선 전망
중동권 120조대 설비 구축 나서
업계 “친환경·고부가 전략 관건”



LG화학 여수 CNT 1·2·3공장 전경

LG화학

국내 석화업계가 2분기 실적 반등 기대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다양한 변수로 인해 긴장감을 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중동의 석화산업 진출이 최근 가장 큰 위험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석화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이 전 분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석화 업계는 범용 제품의 중국발 공급과잉 지속으로 긴 침체기를 겪어왔다.

금융정보업체에프앤가이드는 LG화학의 영업이익이 1분기 2646억원에서 2분기 4703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진단했다. 금호석유화학 역시 781억원에서 851억원으로 영업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1분기 영업손실 2166억원을 기록한 한화솔루션은 2분기 561억원의 손실을 기록하며 적자 폭을 줄일 것으로 보인다. 롯데케미칼도 1353억원에서

477억원으로 영업손실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업계는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분위기다. 특히 중국발 공급과잉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중동의 석유화학 산업 진출 소식까지 들리며 근심이 더욱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중동은 120조원을 들여 8개의 정유·석화·통합공장(COTC)을 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부터 일부 가동 중인 쿠웨이트 국영석유화학회사(KIPIC) 공장을 시작으로 오는 2027년까지 순차

가동할 예정이다.

이러한 중동의 움직임은 전 세계적으로 ‘탈탄소’가 과제가 되면서, 기존 원유 수출만으로는 수익성 유지가 어려워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동 산유국들이 일제히 도입 중인 COTC 공정은 원유에서 나프타를 추출한 뒤 에틸렌 등 기초유분을 생산하는 기존 공정과 달리, 원유에서 곧바로 기초유분을 제조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를 통해 밸류체인 창출하고 수익성 극대화를 이루겠다는

전략이다.

일각에서는 COTC를 통해 제품을 생산할 경우 기초유분 생산 비용을 30% 이상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OCTC 공정을 통해 원유에서 기초유분을 생산할 경우 비율이 기존 공법보다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업계에서는 중동산 석화제품이 시장에 출시될 경우 품질과 가격 면에서 국내 석화업체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업계는 신기술 개발 및 신사업 위주 체질 개선을 통해 대책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고부가가치 제품을 중심으로 전환해 고비를 넘길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 관계자는 “원유를 직접 조달하는 중동은 원가 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밖에 없다”라며 “중국에 이어 경쟁국이 될 중동과의 싸움에서 국내 기업이 살아남으려면 고부가가치 제품을 내세워 차별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 업계는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친환경’, ‘고부가’ 소재 개발 및 판로 개

척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친환경 소재 개발은 탈탄소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다. 동시에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은 가격 경쟁력과 품질 경쟁력을 동시에 높여, 중국 및 중동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이다.

LG화학은 태양광 패널 필름용 폴리올레핀 엘라스토머(POE)와 고수익 제품인 이소프로필 알코올(IPA) 등을 신규 양산 가능하다.

롯데케미칼은 지난해 2100억원을 투자해 2차전지 소재인 전해액의 생산라인을 충남 서산 대산공장에 준공했고 1400억원을 추가 투입해 유사 유기용매 생산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

한화솔루션은 고순도 절연 제품인 해저케이블용 XLPE(가교 폴리에틸렌) 등 신제품을 순차 출시하고 있다. 금호석유화학은 전기차에 적합한 타이어 소재 SBR(합성고무)의 생산 능력을 늘렸고 재활용 소재를 투입한 친환경 제품 생산도 준비 중이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국내 최초

효성重, 200MW급 직류송전 기술 개발

양주변전소에 HVDC 설비 준공
우태희 대표 “글로벌 시장 개척”



우태희 효성중공업 대표가 한전 양주변전소에서 열린 200MW 전압형 HVDC 구축 기념 준공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효성

효성중공업이 국내 최초로 200MW(메가와트)급 전압형 HVDC(초고압직류송전)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효성중공업과 한국전력공사는 경기도 양주변전소에서 200MW 규모의 전압형 HVDC 변환설비 구축을 기념하는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HVDC는 HVAC(초고압교류송전) 대비 먼 거리까지 전력손실을 최소화하며 송전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다.

전압형 HVDC는 전류형 HVDC 대비 실시간 양방향 전력 제어가 자유롭고 계통안정화에도 유리해 재생에너지 연계가 가능하다. 태양광, 풍력발전 등 산지 및 해안가에서 생성한 신재생 에너지를 도심까지 효율적으로 이동시키는 데 필요한 핵심 기술이다.

한전 양주변전소에 설치한 200MW급 전압형 HVDC 변환설비는 경기도 북부 지역 계통 안정화를 위해 사용된다. 200MW는 일반 가정집 48만 가구가 한 달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규모다.

20MW 전압형 HVDC 개발에 성공한 바 있다.

효성중공업은 200MW 전압형 HVDC 개발 성공에 이어, GW(기가와트)급 대용량 전압형 HVDC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전력그리드의 대규모, 대용량화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GW급 HVDC 변환설비에 대한 수요도 같이 늘어나고 있다.

이번 HVDC 개발은 그동안 글로벌 기업들이 과점하고 있던 국내 HVDC 시장과 글로벌 HVDC 시장 진출의 기술적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재 글로벌 HVDC 연간 시장규모는 13조원이다.

우태희 효성중공업 대표는 “효성중공업이 독자기술로 전압형 HVDC 개발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스테콤, ESS 등을 개발하며 차세대 전력 시장 개척을 위해 선도적인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라며 “재생에너지 등 미래 송배전 시장의 핵심기술인 HVDC를 기반으로 글로벌 전력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현정 기자

포스코인터, 광양 1터미널 종합 준공

20년간 1조450억 투자
93만kℓ 저장용량 확보



포스코인터내셔널의 광양 제1LNG터미널 전경.

포스코인터내셔널이 2002년 광양 제1LNG터미널(광양1터미널)의 첫 삽을 뜨지 20여년 만에 종합준공했다. 투자비용만 1조원 규모에 달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9일 전남 광양에 민간 첫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을 종합 준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이 탐사부터 생산, 저장, 발전에 이르기까지 LNG 전 밸류체인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2005년 탱크 1호기 가동을 시작한 이후 약 20년간 총 1조450억원을 투자했다. 이번 준공을 통해 광양1터미널은 1~6호기 저장탱크를 기반으로 총 93만 킬로리터(kℓ)의 LNG 저장 용량과 더불어 18만㎡급 항만설비를 갖추게 됐다.

광양1터미널은 국가 기간산업을 위해 발전용과 공정용 천연가스를 공급할 뿐만 아니라, 포스코, S-OIL, SK E&

S 등 이용사가 직도입한 천연가스를 하역, 저장, 기화, 송출하는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향후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광양터미널을 주축으로 LNG 밸류체인 중류에 해당하는 미드스트림(액화, 운송, 저장, 트레이딩) 영역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장은 “앞으로 광양 LNG터미널의 운영 관리를 자동화하고 최적화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 국내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고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꾸준히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

현대차, ‘2024년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

장재훈 사장 “ESG 경영 내재화”

현대자동차가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성과를 담은 ‘2024 현대자동차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2024 현대차 지속가능성 보고서’는 크게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세

파트로 구성됐다.

환경 파트에서는 기후변화, 순환경제, 생물다양성 등 회사의 경영 활동과 밀접한 환경 관련 주제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사회 파트에는 임직원, 협력사, 고객, 지역사회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을 중심으로 한 주요 콘텐츠가 게재됐다.

지배구조 파트는 이사회 책임 경

영, 윤리·준법 경영, 리스크 경영 등 기업 지배구조 관련 핵심 항목들로 구성됐다.

장재훈 현대차 대표이사 사장은 인사말에서 “현대차는 점차 높아지는 ESG 경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보다 공고히 다지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가길 수 있도록 ESG 경영 내재화를 위한 시도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LS에코에너지, 美 UL 안전인증 획득

지중 전력 케이블 라인업 확장

LS에코에너지가 LS전선의 미국 법인 LSCUS와 함께 발전소 건설업체와 전력청 등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본격 진행하며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LS에코에너지는 미국의 안전인증 기구인 UL로부터 지중(URD) 전력 케이블의 안전인증을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인증으로 LS에코에너지는 기

존의 랜(UTP) 케이블에 더해 미국 수출 제품의 라인업을 확장하게 됐다.

회사 측은 베트남 LS-VINA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동시에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정책의 혜택도 기대하고 있다.

이상호 LS에코에너지 대표는 “이번 인증이 미국 시장을 확대하고, 글로벌 전력 케이블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